

단기 호재, 장기 악재

28 October 2014

윤성철 02.788.7134 basemetal@hyundaifutures.com

● 전일 주요 동향

✓ **美 증시 상승.** 미 증시는 지난 주 상승세를 뒤로 한체 유가와 함께 또 한 차례 동반 하락한 에너지 관련주의 부진 영향에 보험권에서 혼조장세로 마감.

美 Dow +0.07 %.

✓ **中 증시 하락.** 중국 증시는 홍콩-상하이 증시 통합 시스템(후강통)의 출범 시기가 불확실해진 탓에 증권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 또한 지난주 공산당 4차 전체회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발표 없이 폐막한 것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킴.

中 상해종합지수 -0.51%.

✓ **美 달러, 주요통화대비 약세.** 유로 달러대비 상승.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주택지표가 독일의 기업신뢰지수 하락으로 유로가 받은 타격을 완화시켜 주면서 유로가 달러에 상승.

달러/유로 1.2671→1.2698, +0.21%, 엔/달러 108.16→107.82, -0.31%.

✓ **유가(WTI) 약보합.** 수요 부진과 함께 공급 우위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내년 유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시키며, 유가를 압박. 다만,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링이 출현했고, 달러도 하락하며 유가는 초반 낙폭 제한.

WTI -0.01% \$81.00, Brent -0.35% \$85.83.

단기 호재, 장기 악재

드디어 가격이 파업에 주목했다. 불과 얼마전 칠레 파업 소식이 있었음에도 가격은 빠졌다. 관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직 가격하락을 원하는 것처럼 하락재료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상승재료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덕분에 전일도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본다. 전일 전기동 가격은 전일대비 0.68% 상승한 \$6730에 마감.

인도네시아와 페루. 일단 인도네시아의 장기파업 소식. 대형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의 인도네시아 구리광산 광부들은 내주부터 1개월간 파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노조 관계자가 언급했다. 거기에 페루 최대 구리광산인 안타미나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노조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파업 돌입시점인 11월 10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어 장기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발 루머. 사실 파업소식보다 중요한건 중국발 루머다. 중국 전략비축국(SRB)이 재고재 구축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했다. 실제 중국내 전기동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전력부분의 주문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줄었던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시기이다.

단기 호재, 장기 악재. 시장의 관심을 상승쪽으로 돌릴만한 재료가 나왔다. 공급차질 우려와 수요회복 가능성. 이전 같았으면 가격이 급등했을 재료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랭하다. 호재만 보기에선 현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내린 악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일 상황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고는 여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당장 공급과잉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 수요도 우려와 달리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공급과잉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 우선 공급과잉 문제는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향후 가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 중국 및 유로존 등 주요 경제지역의 둔화우려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지며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야 약간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단기호재로 상쇄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된다며 간만에 찾아온 상승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본다.

28~19일, 10월 FOMC. 금일부터 2일간 FOMC가 예정되어 있다(현지시간). 이번 회의에서는 15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이 결정되며, 양적완화(QE)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QE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설βολ리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테이퍼링을 종료하기 보다는 크게 줄인 50억 달러 규모로 줄인다는 것이다.

만약 종료 없다면,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우려했던 달러강세가 완화되며 추가 가격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본다.

전기동 예상레인지: \$6,503~6,950.

귀금속

유가 약세로 소폭 하락. 그러나 실수요 회복과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으로 금의 낙폭은 제한.

금은 그러나 지난달 홍콩을 통한 중국의 금 수입이 국경절을 앞두고 대폭 증가, 6개월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지지받음.

시장에선 금값 하락으로 아시아지역의 물리적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1180달러 지지선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언급.

뉴욕장 후반 금 현물은 전일비 0.1% 하락한 온스당 1229.23달러. 금은 이날 6달러 미만의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상황. 금은 4 거래일 연속 하락.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금 선물 12월물은 온스당 2.50달러 떨어진 1229.30달러에 마감. 로이터 잠정 집계에 따르면 거래량은 평소보다 적었음.

투자자들은 28일과 29일 양일간 열리는 연준 정책회의를 주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채권 매입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상당 기간 현재의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

홍콩 센서스 및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을 통한 중국의 금 순 수입은 8월의 27.477톤에서 9월 68.641톤으로 크게 증가. 금 투자자들은 금 상장지수펀드(ETF)도 주시.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골드트러스트의 금 보유고는 24일 기준 745.39톤으로 전일비 4.5톤 감소하며 6년 최소를 기록. SPDR 골드트러스트의 지난주 금 보유고 주간 감소폭은 15.5톤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

DATA

● LME PRICE(3M)

LME	시가	고가	저기	종가	Change(\$)	%
전기동	6,675.0	6,752.0	6,659.5	6,730.0	45.5	0.68%
알루미늄	1,970.0	1,987.0	1,958.3	1,978.8	12.0	0.61%
아연	2,252.0	2,262.0	2,239.0	2,257.0	1.0	0.04%
납	1,991.3	2,021.3	1,986.3	2,014.0	22.0	1.09%
주석	19,476.0	19,595.0	19,475.0	19,585.0	112.0	0.57%
니켈	14,950.0	15,000.0	14,700.0	14,700.0	-250.0	-1.70%

● LME STOCKS

LME	금일재고	Change (+/-)	Change (t)	On Warrant	Cancelled	In	Out
전기동	159,550	UNCH	0	123,125	36,425	0	0
알루미늄	4,447,200	DOWN	14,875	1,813,675	2,633,525	0	14,875
아연	711,075	DOWN	1,650	574,850	136,225	0	1,650
납	224,400	DOWN	275	210,200	14,200	25	300
주석	9,105	UNCH	0	8,490	615	0	0
니켈	378,222	UP	90	289,740	88,482	474	384

● PRECIOUS METAL PRICE

Prec. Metals	LBMA Fixing		LBMA Lending		SPOT		COMEX Prec. Metal	
	AM	PM	1M	2M	Last(Spot)	Net Chg.	LAST	Net Chg.
GOLD	1,231	1,229	-0.09	-0.05	1,228		1,225	-4.40
SILVER	17.18				17		0	0.00
PLATINUM	1,256	1,253	0.27	0.57	1,260		1,255	0.00
PALLADIUM	781	788	0.06	0.15	787		786	0.00

전기동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알루미늄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아연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납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니켈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주석 가격과 이동평균선(5, 20, 60)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할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